

폭언·갑질·성희롱...공직서 보호시설까지 여전한 인권침해

■광주인권사무소 올 조사완료 진정사건 496건 살펴보니

자치단체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폭언과 성희롱을 하고 보호해야 할 공직제보자의 개인신상을 노출하는 등 광주·전남 곳곳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2일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지역 인권 사례발표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진정, 상담, 내내 민원 처리 실적 등을 공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올해(11월 26일 기준) 배당받은 721건의 진정 사건 중 496건을 조사 완료했다. 접수된 진정 사건의 기관별 유형으로는 구급시설(교도소)이 172건(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애인 차별(정신병원) 163건(23%), 경찰 117건(18%), 다수인 보호시설(사회복지) 111건(17%), 지자체 38건(6%), 학교 34건(5%), 공직 유관기관 20건(3%) 순이었다. 진정 유형은 주로 폭언과 폭언, 신체 자유제한, 강제입원, 직장내 갑질 등이었으며, 과거와 달리 가혹행위는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광주인권사무소가 짚은 주요 인권 침해 사례로는 전남 한 군수의 발언이 주목됐다.

전남의 한 지자체의 A군수는 2017년 10월 양성평등교육에서 'XX', '내 X갈'이라는 입에 담기 힘든 말을 내뱉었고,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주민들 앞에서 같은 말을 또다시 했다. A군수는 또 2017년 7월 실시된 성폭력예방교육에서는 강사를 소개하며 '허리 24는 매력포인트'라고 발언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인권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A군수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인

교도소 172건으로 가장 많아 경찰·지자체·학교 등도 상당 군수가 양성평등교육서 막말 내부 고발자 개정정보 유출도

권교육 중 '인권의 이해'를 수강하고, 수료증과 소감문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전남의 한 공공기관에서는 뇌종양으로 질병 휴가를 신청하기 위해 진단서를 가지고 출근하자, 다음 날 출근을 지시하고 "진짜 아픈 것 맞냐"며 추가 진단서를 요청하는 등 특별감사 조사를 받도록 강요했다.

이에 인권위는 뇌종양 환자에게 질병 휴가를 제한하고, 감사 조사를 받도록 강요한 것은 헌법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기관 내 사례전파와 특별인권교육 이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밖에도 내부 비리 신고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대한체육회, 전남도체육회, 전남도 등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 교육계에서도 학생인권 침해 사례가 적발됐다. 한 학교는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압수하거나, 적발되면 벌점 10점을 부과한 뒤 체력단련을 명목으로 운동장을 계속 돌도록 하는 체벌을 했다.

김철홍 광주인권사무소장은 "올해부터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인권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전남 섬 지역에 대한 인권·고용 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의료 등 기본 서비스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명 기자 young@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민생법안 정치적 흥정거리 전략 있을 수 없는 일"

'민식이 법' 등 발목 강력 비판 국회 예산안 신속한 처리 당부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략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인한 국회 마비로 이른바 '민식이 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사태에 놓여 있다"며 "입법-예산의 결실을 거두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락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며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안전,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들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소중한 법안들로,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된다"며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오늘은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지만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고 지적한 뒤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 심리에 활력을 불어 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주 부산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제1차 한-미중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이제 신남방정책은 본궤도에 안착했고 아세안과 우리의 협력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사회·문화, 평화·안보·외교 등 다양한 분야의 이번 정상회의 성과를 열거하면서 "아세안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의 경험과 의지는 아세안의 성취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전남대 로스쿨 검사 3명·재판연구원 8명 배출

전남대학교가 재판연구원 8명과 검사 3명을 배출했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달 발표된 2020년 임용 재판연구원(로클럭 law clerk) 선발전형에서 8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데 이어, 같은 달 27일에 발표된 2020년 신규검사 선발전형에서 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각 고등법원 권역별로 진행된 이번 2020년 재판연구원 선발전형에서 전남대 법전원 3학년이 재학중인 김리나·최은정은 서울에서, 서영경은 대구에서, 김중권은 대구에서, 그리고 광주에서는 김민준·

송은영·유다예·정태화가 각각 합격했다. 재판연구원은 법원소속 공무원으로 사건심리 및 기록 검토 등 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다 이를 경력 쌓아 판사로 임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함께 2020년 신규검사 선발전형에서도 광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손성훈 졸업생(4기)과 3학년 재학생 김민찬·서세영이 최종 합격했다.

이로써 전남대 법전원은 제1회 졸업생 6명을 시작으로 9회 졸업예정자까지 모두 40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채희중 기자 chae@

청와대 "백원우 산하 감찰반원 2명 법과 원칙따라 업무 수행"

청와대는 2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날 숨진 백원우 전 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는지 혹은 비서관의 별명대였는지 하는 등의 의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을 했던 두 분은 대통령 비서실 직

제령 등 법과 원칙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접감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희가 확인했지만, 창성동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질 관련이 없다"고 했다. 그는 "고인이 활동한 민정비서관실 특감반 편제·활동을 설명하면, 당시 이 특감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 1항 3호에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업무를 담당했다"며 "2017년 민정실 특감반은 5명

중 3인은 친인척, 2인은 특수관계인 담당이었고, 어제 돌아가신 한 분은 특수관계인 담당 2인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뿐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다.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선임 비서관실로 업무 성질 및 법규상 위배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민정수석실 조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 1월 11일쯤으로 추정되는데 그날 오전 이들은 기차를 타고 오후에 울산에 도착해 먼저 해경을 방문,

중립적 견지에서 고래고기 사건 설명을 청취했다"며 "그 다음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또 다른 감찰반원은 울산경찰청으로 가서 고래고기 사건 수사정을 청취했다. 그리고 각각 기차를 타고 상경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일어 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말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방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MODERN (트윈스틸)

(재)광주전남연구원 공고 제2019-14호

(재)광주전남연구원 제4대 원장 초빙 공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공동 출연기관인 「(재)광주전남연구원」에서는 연구원을 이끌어 갈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덕망 있는 제4대 원장을 다음과 같이 초빙합니다.

2019. 12. 03.
(재)광주전남연구원 이사장

1. 공모직위 : 광주전남연구원 원장(상근임원)
2. 임용기간 : 인용일로부터 3년
3. 직무내용 : 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짐
4. 보 수 : 최초 임용시 고정급 연봉제 차관급으로 하고, 이후 매년 성과계약에 의함 ※ 근거: 광주전남연구원 보수규정
5. 응모자격
 -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자질과 경륜을 갖춘 자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광주전남연구원」 원장공고요건 및 선임규정, 제(3조)

가. 대학교의 정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할 경력이 있는 자
나.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할 경력이 있는 자
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상근임원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할 경력이 있는 자
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상용하는 연구인력과 연구실적이 있는 국내외 민간 연구기관의 상근임원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할 경력이 있는 자

※ 자격요건 기준일: 1차 심사일 기준

○ 지역 · 연령 · 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결격사유〉
· 공직선거, 환경친화적개발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령의 면제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지령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출서류
 - 가. 지원서(소정양식) 1부 나. 이력서(소정양식) 1부
 - 다. 최종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 제반 증명서류 각 1부
 - 라. 연구실적 및 주요업적(소정양식) 1부
 - 마. 직무수행계획서: 연구원 발전에 대한 소견(자유양식 A4 5매 이내) 1부
 - 바. 주민등록증 1부
 - 사.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공 동의서(소정양식) 1부
 - 아. 자기검증기술서(소정양식) 1부

자. 기타 원장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등
(단, 원장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응모 후 제출할 수 있음)

※ 응모일 및 기타 제출서류 양식은 광주전남연구원 홈페이지(www.gjnri.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7. 응모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12.04(수) ~ 12.23(월) 09:00 ~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다. 접수 처 : 광주전남연구원 기획경영상실
○ (우88217)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56, 토담리차터타워 6층(광주전남연구원 기획경영상실 (Tel. 061-931-9308))

8. 심사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심사(원장후보자추천위원회)
○ 심사방법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자격요건 심사
나. 2차 심사(원장후보자추천위원회)
○ 심사대상 : 1차 심사 합격자
○ 심사방법 :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병행하되, 면접심사는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발표(15분 이내, 심사요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의 · 답변)
○ 합격기준 : 전문성, 경영능력, 리더십, 지역사회 기여 의지 등
○ 합격자 발표 : 이사회회의 의결로 선정된 최종후보자 1인에게 개별 통지
다.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의회에서 공동 실시)
○ 청문회 대상 : 이사회 의결로 선정된 최종후보자 1인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의 주요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다.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원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합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마. 본 공고문은 광주전남연구원 홈페이지(www.gjnri.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남연구원 기획경영상실(☎061-931-93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